

## 하우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에 나타난 자살 모티브\*

김 화 임

(전북대학교 조교수)

### ◆ 국문초록

서양문학에서 자살은 오래 전부터 중요한 모티브 중의 하나였다. 독일의 자연주의 작품에서도 자살이 빈번한 모티브로 등장하고 있다. 독일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극작가에 속하는 하우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에도 자살 모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인공 요하네스의 자살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요하네스의 자살은 뒤르켐 의미의 '이기적' 자살로 분류될 수 있다. 그는 가족, 친구 등 어떤 사회에도 통합되지 못한 '개인주의자'이다. 또한 그의 죽음은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의 해석도 가능하다. 프로이트는 공격충동이 초자아에서 발원한다고 하였는데, 요하네스에게 아버지의 위상은 두드러진다. 더 나아가 요하네스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집안의 가장이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한다. 그러한 태도는 그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요하네스의 자살 동기는 현대인들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주제어 : 자살, 외로운 사람들, 하우프트만, 자연주의, 뒤르켐, 초자아

\* “이 논문은 2020년도 전북대학교 연구중점교수 선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독일·EU연구소 연구위원)

## 1. 들어가는 말

서양 문학에서 자살은 이미 호머의 『오딧세이 Odysee』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고,<sup>1)</sup> 독일 문학에서는 9세기 전반에 나온 고대 작센의 서사시 『구세주 Heliand』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그 이후에는 극작품에서 종종 자살을 주제로 한 작품이 등장했다.<sup>3)</sup> 그러나 독일 문학에서 자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은 단연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1774)이다. 이 작품 이래로 독일 문학에서 자살 모티프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등장해 왔다. 산업사회의 병폐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던 독일의 자연주의 극작품에서도 자살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의 하나였다.

특히 독일의 자연주의는 독일 제국의 건설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는 프랑스와의 전쟁 (1870-1871)에서 승리한 후 독일의 황제로 등극하였고, 곧 이어 총 25개의 개별 국가들을 독일 제국으로 통합하는 헌법을 공포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사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프랑스가 독일에 지불한 전쟁 배상금은 독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산업화도 가속화시켰다.<sup>4)</sup> 급격한 산업화는 사회적 문제도 동반하였는데, 빈부의 격차, 범죄 행위, 매춘, 알코올 중독 등이 그러한 문제들에 속했다. 독일의 자연주의 작가들은 바로 그러한 ‘암울한’ 현실에 눈을 돌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살’ 역시 그들

1) Langenberg-Pelzer Gerit: *Das Motiv des Selbstmords in der deutschen Literatur der Jahrhundertwende*. Diss. Aachen, 1995, p. 8.

2) Roger Willemse, *Der Selbstmord. Briefe, Manifeste, literarische Texte*. Köln, 2002, p. 22.

3) 그 예들로 한스 작스 Hans Sachs의 *Lucretia*(1527), 로헨슈타인 Daniel Casper von Lohenstein의 *Sophonisbe*(1669), 고트슈트 Johann Christoph Gottsched의 *Sterbender Cato*(1731), 레싱 Gotthold Ephraim Lessing의 *Miss Sara Sampson*(1755)을 들 수 있다.

4) Vgl. Wolfgang Bunzel, *Einführung in die Literatur des Naturalismus*, Darmstadt, 2011, p. 16.

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독일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극작가, 하우프트만 Gerhart Hauptmann(1862-1946)의 작품들 중, 근 19편에서 자살 모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5)</sup>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목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여러 작품에서 당대의 사회적 문제, 즉 가족, 결혼의 붕괴와 같은 문제를 다루었는데<sup>6)</sup>, 그러한 파국적인 주제 속에 ‘자살’도 동반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외로운 사람들 Einsame Menschen』(1890)<sup>7)</sup>은 하우프트만의 세 번째 작품으로 그의 초기작에 속한다. 하지만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가장 애호한다고 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삶에 대해 발언하였다는 데 있었다.<sup>8)</sup> 이 작품은 탄생 100년이 되던 무렵, 1995년과 1997년 사이 독일 무대에서 진정한 르네상스를 맞기도 했다.<sup>9)</sup> 작가의 생생한 경험이 농축되어 오늘날에도 그 시의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던 셈이다. 더 나아가 요하네스의 ‘외로움’은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 작품의 시의성을 재고해 볼 수 있다. 특히 요하네스의 자살 동기는 간단하게 유형화<sup>10)</sup>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5) Christel E Meier, *Das Motiv des Selbstmords im Werk Gerhart Hauptmanns*, Baden-Baden, 2005, p. 368.

6) 이와 관련하여 노영돈, 「하우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에서의 여성상과 문제점」, 『뫼히너와 현대문학』, No. 29, 2007, pp. 285-304 참조할 것.

7) 하우프트만은 1890년 10월, 극의 요약본을 급하게 먼저 썼다. 제목을 『마리아와 마르타 Maria und Martha』라고 했다가 나중에 『외로운 사람들』로 고쳤다. 이 작품은 1890년 11월 23일 베를린에서 완성되었고, 다음 해 1월 11일 자유 무대에서 초연되었다.

8) Max Dessoir: *Eine Erinnerung*. In: Ludwig Marcuse(Hrsg.), *Gerhart Hauptmann und sein Werk*, Leipzig 1922, p. 17: “‘Meinen Erstling, ‘Vor Sonnenaufgang’, erwiderte Hauptmann, indem er sich mit einer Miene des Unbehagens zurechtrückte, ‘möchte ich am liebsten verleugnen. An allen andern Stücken halte ich dagegen fest, und nach wie vor sind die ‘Einsame Menschen’ das liebste. Da habe ich viel von meinem intimsten Persönlichkeitsleben aussprechen können’”.

9) Christel Erika Meier, *Das Motiv des Selbstmords im Werk Gerhart Hauptmanns*, Würzburg 2005, p. 370.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우스프트만의 초기작, 『해뜨기 전』과 비교할 때도 자살 동기의 다층적 의미가 특징적이다. 이러한 다각적 시각에서의 요하네스의 자살 동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해하고, 해명하는 데 유효한 몇 가지 이론들을 전제하고자 한다.

## II. 자살 동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서양에서 자살을 보는 시각은 시대마다 상이했다. 자살을 운명적 행위로 보기도 했고, 신과 악령이 깃든 행위라는 주장도 있었다. 자살 동기가 개인에게 있다거나, 사회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생겨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였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지배적이었는데, 사회학적 시각과 정신분석학적 시각이 그것이다. 전자에서 자살은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귀결되었고, 후자에서는 외적 요인들을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실제 원인을 인간의 내면에서 찾았다.<sup>11)</sup> 이러한 두 가지 스펙트럼 내에서 오늘날 자살 행위를 설명하는 수많은 모델들과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다. 신경학과 유전학의 성과에 기반을 둔 해석들, 자살을 모방된 갈등 행위로 해석하는 학습 이론들까지 그 층위가 다양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전히 사회학, 정신분석학, 임상적 정신의학

10) 김경란은 「독일문학에 나타난 자살양상」(실린 곳: 『독어교육』, No. 61, 2014, S. 77-101)에서 자살을 세 유형, 즉 낭만적 꿈의 실현, 자아 성찰적, 사회 저항적 자살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자살을 인위적으로 유형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김경란의 「독일문학에 나타난 자살모티프 -에밀 슈트라우스 『친구 하인』을 중심으로-」(실린 곳: 『독일언어문학』 제63집, 2014, S. 213-235)는 자살 원인을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조명하려고 한 점에서 본 연구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경란의 논문의 경우 자살 이론, 특히 프로이트의 이론이 2차 문헌에 의존하면서 정신분석학에 대한 이해가 표피적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지적되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이다.

11) Vgl. Lydia Prexl, *Zwischen Selbstbehauptung und Eskapismus. Der narzisstische Suizid im amerikanischen Gegenwartsdrama*. Norderstedt, 2014, p. 41.

이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뒤르켐 Émile Durkheim(1858-1971)과 프로이트 Sigmund Freud(1856-1939)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개괄적인 차원에서 두 사람의 이론 및 이와 연관된 보다 현대적인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뒤르켐의 사회학적 시각

사회학에서의 자살 연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문제에서 출발한다. 즉 어떤 사회 조건이 개별 구성원들에게 자살 성향 발생에 결정적인지, 그리고 자살률과 사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그것이다. 뒤르켐은 자살의 원인이 인간의 내부에 있기보다는 외부에 있다는 관점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론가에 속한다. 그에 의하면 자살 경향은 사회적 원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것 자체가 집단적 현상이다.<sup>12)</sup> 그는 모든 인간이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있고, 인간의 모든 행동 역시 사회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sup>13)</sup>

그에게 자살의 개인적 동기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거대 사회학적 담론의 시각을 취하며 종교적 신앙, 가족, 정치 집단, 직업군 등이 그의 조사 대상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환경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자살에도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힌다. 그에 따르면, 자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이기적 자살이다. 뒤르켐은 종교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신교가 가톨릭교회보다 자살률이 더 높은 것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가 통합력 측면에서 가톨릭교회보다 약하다는 데 있었다.<sup>14)</sup> 또한 교육받은 계층에서 자살 경향이 높은 이유는 전통적인 믿음이 약화된 반면, 도덕적 개인주의가 강화된 데 있었다.<sup>15)</sup>

12) 뒤르켐 Émile Durkheim, 『자살론』, 황보종우 옮김, 청아출판사, 2008, 163쪽.

13) Lydia Prexl, a.a.O., p. 42.

14) 뒤르켐, 같은 책, 184쪽.

이러한 방식으로 뒤르켐은 종교 사회, 가족 사회, 정치 사회의 통합 정도와 자살이 반비례한다는 점을 밝혔다.<sup>16)</sup> 즉 “개인이 속한 집단이 약화될수록 개인은 집단에 덜 의존하며, 스스로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자신의 사적 이익 이외의 행위 기준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자아보다 강력하고, 사회적 자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개인의 자아를 주장하는 상태를 이기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한 자살을 이기적인 자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17)</sup>라고 했다.

뒤르켐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의 이기주의가 자살을 돕고, 자살을 발생시키는 요인인 것이다.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유대가 느슨해질 때 삶과의 연결고리 역시 약화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둘째, 이타적 자살을 들고 있다. 이는 사회적 통합이 지나칠 정도로 강한 데 비해 개인주의가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사회가 개인에게 자살을 강요하며, 자살 의무가 강제성을 갖는 조건과 상황도 만들어 낸다.<sup>18)</sup> 개인의 가치가 말살되고, 집단과 개인이 주종관계에 있는 사회에서 주로 발생하며, 노인들의 자살, 군인들의 영웅적 자살이 그 사례들에 속한다.<sup>19)</sup>

셋째, 아노미성 자살은 도덕적, 사회적 규범의 상실, 그리고 개인이 겪는 가치관의 혼란 및 방향상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9세기 말 서구 사회를 염두에 둔 뒤르켐은 아노미를 현대사회의 특수한 자살 요인으로 간주했다. 당시 종교적 힘의 약화와 함께 정부 역시 경제의 도구나 시녀가 됨으로써 인간의 활동이 충분히 규제받지 못하면서 아노미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야망을 추구하는 산업 사회의

15) 같은 책, 196-197쪽.

16) 같은 책, 249쪽.

17) 같은 책, 250쪽.

18) 같은 책, 265쪽.

19) 같은 책, 262쪽.

시스템과 아노미가 결부되어 있다고 하며, 아노미성 자살은 주로 공업과 상업의 세계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강조했다.<sup>20)</sup>

뒤르켐에 의하면 “아노미는 이중적이다. 스스로 자신에게 확실한 것을 줄 수 없는 만큼, 자신에 대해 확실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져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 결과 좌절, 불안, 불만 등이 불가피하게 자살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sup>21)</sup> 이러한 아노미성 자살은 성과 위주의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고 있다.<sup>22)</sup>

뒤르켐의 이론은 19세기 말 서유럽에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sup>23)</sup> 그는 당대의 자살률의 증가가 다른 무엇보다도 문명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개인화의 결과로 간주했다. 하우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이 출간된 시기도 독일의 ‘문명화’에 뒤따른 ‘개인주의’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뒤르켐의 이론이 일정 정도 소용된다고 하겠다.

## 2. 의학적 차원에서의 접근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에스키롤 Jean-Étienne Dominique Esquirol (1772-1840)은 1838년 자살이 정신착란, 광기, 생리학적 기능 상실에 기인한다는 점을 논증적으로 제시했다. “자살은 그 자체 정신병의 모든 징후를 갖고 있다.”<sup>24)</sup>고 하며, 자살을 우울증, 멜랑콜리, 광기에 뒤따르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20) 같은 책, 323쪽.

21) 같은 책, 329쪽.

22) Vgl. Lydia, a.a.O., p. 43.

23) 물론 뒤르켐의 이론은 자살을 사회적 상황의 결과이자, 그 작용에 두면서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해명에는 무력하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24) Hier zit. nach Lydia, p. 48.

이러한 에스키롤의 주장이 20세기 초 독일의 정신과 전문의 가우프 Robert Gaupp(1870-1953)에 의해 구체화되었고, 학문적으로도 보다 공고화되었다. 그는 1904년과 1906년 사이 자살 시도를 하였던 124명의 환자들을 분석하였는데, 거의 모든 시도들에서 개인적인 정신적 장애 혹은 정신병으로 설명될 수 있는 논거들이 도출되었다. 그에 의하면 자살은 언제나 병적 상태에서 발원되었다. 뇌의 변화가 환자들의 의식에서 슬픈 기분을 유발시키고, 죄책감, 마침내 “자기 파괴의 충동”으로 귀결되었다.<sup>25)</sup>

그러나 자살의 원인을 정신병으로 귀결시킨 에스키롤과 가우프의 논의는 20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상대화되었고, 상당 정도 폐기 처분되었다. 브로니쉬 Thomas Bronisch는 우울증이 자살 행동을 초래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자 간의 인과성이 확실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살에서도, 자살시도에서도 생물학적인 손상 가능성의 부분을 우울증세로만 귀결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26)</sup>고 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의 경우도 그것이 자살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자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링켈 Erwin Ringel도 모든 자살자들이 정신병자이거나 신경증 환자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였고, 신경증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자살이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sup>27)</sup> 물론 정신병으로 야기된 자살도 예외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신병을 가진 환자들의 자살도 대체로 절망적 상황, 관계상실, 절망감, 사회적 몰락과 같은 보통의 원인들로 귀결된다고 본 것이다.<sup>28)</sup> 이러한 방식으로 자살이 정신적인 병과 결부되어 있고, 성공적인 치료요법을 통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5) *Ibid.*, p. 49.

26) Thomas Bronisch, “Depression”, In: *Der Suizid. Ursachen, Warnsignale, therapeutische Ansätze*. Hrsg. Thomas Bronisch, Stuttgart 2002, p. 170.

27) Armin Schmidtke, *Verhaltenstheoretisches Erklärungsmodell suizidalen Verhaltens*, Regensburg, 1988, p. 23.

28) *Ibid.*, p. 25.

이러한 의학적 차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에 부각되고 있는 학습 이론적 관점과 생물학적 관점은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학에서는 자살 성향을 유전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진화생물학에서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이 인간의 의지 조절과 무관하게 어떻게 자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신경생물학 역시 생화학적 과정이 뇌에서 자살의 원인자로 작용하는지를 검사한다. 이를 통해 처방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고자 하는 것이다. 학습 이론적 관점은 자살이 특정 가족에게서 나타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을 기초로 자살 행위가 삶의 위기와 의미 극복을 위해 주관적으로 습득된 태도방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sup>29)</sup>

이러한 이론들은 요하네스의 자살 행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제라고 하겠다.

### 3. 정신분석학적 관점

프로이트는 1916년에 출간한 “애도와 우울증 Trauer und Melancholi”에서 애도와 우울증을 구분하는 한편, 우울증 환자와 자살 성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애도와 우울증은 대상과 관련된 상실감과 관련된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의 고통은 자아 상실에 대한 고통으로 드러난다는 점에 그는 주목했다. 우울증 환자에게 “자아는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아이다. 그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스스로가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 처벌받기를 기대한다.”<sup>30)</sup> 이는

29) 이에 관한 연구들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들 수 있다. Alec Roy: “Possible Biologic Determinants of Suicide.” In: *Current Concepts of Suicide*, Hrsg. David Lester. Philadelphia, 1990, P. 40-56/Thomas Bronisch und Jürgen Brunner: “Neurobiologie suizidalen Verhaltens am Ende des 20. Jahrhunderts.” In: *Suizidforschung und Suizidprävention am Ende des 20. Jahrhunderts*. Hrsg. Manfred Wolfers, Regensburg, 2000, pp. 153-172.

30)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열린

주체가 상실한 대상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자유로운 리비도가 자기 자신으로 퇴각하면서 잃어버린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다. 대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리비도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에너지도 자아 속으로 이전되고, 본래 환멸을 느낀 대상에 향해야 할 미움이 자기 자신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한편으로 동일시로의 퇴행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증 병존에 따른 갈등의 영향을 받아 그 갈등에 아주 근접해 있는 사디즘 단계로 후퇴하는 것이다”.<sup>31)</sup> 그는 우울증 환자와 자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울증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아가 대상 리비도 집중이 복귀함에 따라 스스로를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만 하면, 말하자면 외부 세계의 대상에 대한 자아의 원초적 반응을 표현하면서 그 대상으로 향해 발산되었던 적개심이 자아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게 되면, 자아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나르시시즘적 대상 선택에서 퇴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상은 제거되지만 그럼에도 그 대상은 자아 자체보다도 더 큰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열하게 사랑에 빠지는 상황과 자살을 하는 상황이라는 두 상반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방식은 서로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 자아는 대상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는 셈이다.<sup>32)</sup>

이러한 프로이트의 견해를 그대로 계승한 메니저 Karl Menniger와 질보그 Gregory Zilboorg는 자살을 자기 공격적인 대리 살인으로 특징짓는다. 특히 메니저는 프로이트의 충동이론<sup>33)</sup>에 기초하여 자살을 세

---

책들, 2011, 247쪽.

31) 같은 책, 256쪽.

32) 같은 책, 257쪽.

33) 프로이트는 “쾌락원칙을 넘어서 Jenseits des Lustprinzips”(1920)에서 모든 개인에게는 선천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힘과 자기를 파괴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며, 그 힘을 삶의 충동과 죽음 충동이라고 했다. 두 힘들은 본래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죽고자 하는 소망을 꺾는다. 이는 자살 형태에서 그다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 형태는 한편으로 죽은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불멸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원시인들의 자살에서 찾아진다. 둘째, 죽이고자 하는 소망을 드는데, 이는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본래의 공격충동 혹은 살해충동을 뜻한다. 이러한 충동은 미움의 감정, 복수의 욕구로도 표현된다. 셋째,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이는 굴종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이와 같은 공격 충동은 초자아에서 발원하고, 자기 비난, 죄책감 혹은 마조히즘적 경향으로 표현된다.<sup>34)</sup>

질보그 역시 프로이트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첫째,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고 둘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벗어난 심리적 에너지가 완전히 자아에 이전될 때, 즉 실제의 상실, 그 상실을 외부 세계에서 다른 활동성을 통해 보충할 수 없을 때, 즉 심리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과 결합할 수 없는 경우 셋째, 상실한 애정대상에게 이율배반적인 미움-사랑-감정과 마주하는 경우 넷째, 그 인물 자체와 동일시 이후 대상에 대한 격분한 감정을 극복하려고 할 때 자살로 이어진다.<sup>35)</sup> 이러한 방식으로 자살은 자아에 대한 살해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요하네스의 자살을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

자기에게 향해 있으나, 개인적인 발전과 사회화의 과정에서 점차 외부로 향하게 되고,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혼합되거나 상호 중립화된다. 그런데 주체가 환멸을 느끼거나 좌절하게 되면 공격적 감정이 보통의 경우 좌절의 원천으로 향하게 된다고 했다.

34) Karl Mennig, *Man against himself*, Frankfurt am Main 1978, pp. 18-26.

35) Christa Baum, *Selbstmord*, *Soziologie, Sozialpsychologie, Psychologie*, München 1971. p. 94.

#### 4. 다차원적이며 복잡한 사건

20세기를 거치면서 사회학적 관점과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통합하려는 이론들도 생겨났다. 헨리와 쇼트 Henry und Short의 작업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 두 사람은 두 가지 변수들을 통합하는 시도를 했다. 프로이트에 의거하여 좌절이 공격성을 야기한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회적 변수들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첫째, 그룹의 신분위계에서 그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그룹의 자살률은 더 높다. 둘째, 어떤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의 그룹의 관계체계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 자살 행위를 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때 관계체계의 강도란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의 집중도를 뜻한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변수들에는 외부적 억압이라는 공통의 가설이 전제되므로 행동은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의 지위가 높고, 또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사람에게 노출된 외부적 압박은 그만큼 더 적다. 반면 어떤 사람에게 노출된 외부적 억압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자살할 개연성은 그만큼 더 크다.

이와 동시에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공격의 방향은 어떤 사람이 지닌 죄책감 혹은 초자아 형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이때 초자아란 부모가 아이에게 부여한 요구와 기대를 아이가 내면화한 시스템으로 정의된다.<sup>36)</sup> 죄책감 혹은 초자아 형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부로 향한 공격성이 존재할 개연성은 그만큼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sup>37)</sup> 이와 관련하여 교육의 방식과 교육담당자가 문제된다. 아이의 죄책감을 형성시키는 요인으로는 교육의 기술로서 보상과 벌로 성장한 아이 그리고 엄마가 가족에서 주도적일 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 *Ibid.*, p. 101.

37) *Ibid.*, p. 106.

반면 아버지가 가족에서 주도적일 때 공격적 성향이 내부로 향할 개연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아이는 사랑의 근원을 잃지 않기 위해 아버지에게 대한 공격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부로 향한 공격성의 이러한 심리적 전제를 헨리와 쇼트는 “내면화된 억압의 정도”<sup>38)</sup>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어떤 사람의 내면화된 공격 억제 메커니즘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자살 할 개연성은 그만큼 더 큰 것으로 간주된다.

헨리와 쇼트의 작업과 함께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살 행위를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도 등장한다. 자살은 여러 사건들, 가령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인간 간의 문제,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과 뒤얽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사이드만 Erwin Sheidman은 “자살의 다분야적 성격”<sup>39)</sup>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럼에도 그는 자살행위의 핵심을 “내적 고통의 중심적인 의미”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자살은 극심한 고통에 의해서 야기된다. (...) 극심한 고통 없이 자살은 없다”<sup>40)</sup>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살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관련된다. 이때 심리적 고통은 생활에 필요한 정신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고, 차단되거나 거부될 때 야기된다고 하며, 그러한 욕구들로 “인정, 이해, 배려, 권력, 고통최소화”<sup>41)</sup>를 들고 있다.

이러한 헨리와 쇼트, 그리고 사이트만의 견해는 요하네스의 자살 동기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38) *Ibid.*, p. 102.

39) Edwin S. Shneidman, *Definition of suicide*, New York, 1985, p. 202.

40) Edwin S. Shneidman: “Suicide as Psychache.” In: *Essential Papers on Suicide*. Hrsg. John T. Maltsberger und Mark J. Goldblatt. New York, 1996, p. 633f.

41) *Ibid.*, p. 634.

### III. 『외로운 사람들』에 나타난 요하네스의 자살 동기

요하네스의 자살 동기는 뒤르켐의 ‘이기적 자살’, 정신분석학적 차원에서 ‘내면화된 억압’, 그리고 ‘정신적 고통’ 세 차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1. 이기적 자살

하우프트만의 다른 초기작들과 마찬가지로 『외로운 사람들』 역시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독일은 서구 다른 유럽에 비해 뒤늦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뒤르켐 의미에서의 ‘문명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다. 주인공 요하네스의 자살은 우선 뒤르켐의 자살에 대한 세 가지 분류 중, ‘이기적 자살’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극은 요하네스 아들의 영세식과 함께 시작된다. 이 행사에 목사, 그의 부모, 아내 케테 그리고 친구 브라운이 참석한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날, 요하네스는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 그의 태도에 케테는 주눅이 들고, 브라운은 그를 비아냥거린다. 더구나 브라운은 요하네스에게 경멸적인 언사마저 내뱉는다. 케테와 브라운 역시 요하네스와 같은 세대로서 그의 부모 세대처럼 맹목적인 신앙인은 아니다. 케테는 부모의 심사를 거스르지 않은 차원에서 전통적인 집안 행사를 치르는 것이고, 브라운 역시 가까운 친구로서 그의 도리를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요하네스는 마땅치 않은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자신은 “기도교적 관점”<sup>42)</sup>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그의 부모는 “경건하며,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16)이다. 요하네스와 그의 부모가 대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벽에 걸린 그림

---

42) Gerhart Hauptmann, *Werkauswahl Bd. II*, Augsburg 1994, p. 15.(이하 페이지만 표시)

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벽에는 야콥이 천사와 싸우는 것을 표현한 그림과 함께 다윈, 헤켈 Ernst Haeckel의 초상 및 그의 친필서명이 나란히 걸려 있다. 그가 헤켈의 강의를 들었다는 증거물이기도 하다.<sup>43)</sup> 영세식을 거행한 목사가 그것을 보고 “당신의 선생이었느냐?”고 묻자, 요하네스는 그렇다고 그것도 “재빨리, 열정적으로”(18) 대답한다. 이로써 요하네스는 기독교의 종교 공동체에 대한 거리를 나타내며, 그것과 대립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달리 말해 그는 그의 부모 세대와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더군다나 같은 세대인 친구와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요하네스는 목사에게 “진실”을 말했다고 하며, 사람은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브라운은 “학문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삶에서는 아니지”(19)라는 말로 그의 태도를 비아냥거린다. 그가 보기에 요하네스는 단순히 “감상벽”(16)에 빠져 있다. 더구나 그는 요하네스의 “어중간함”(16)을 혐오한다. 브라운이 그를 혐오하는 이유는 그들 사이에 있었던 전사를 통해서 밝혀진다. 그들은 한때 사회적인 일을 함께 도모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요하네스는 자기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면서 그 일을 그만두었다. 브라운이 볼 때 그는 대의를 버린 ‘반역자’이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자일 따름이다. 이렇듯 요하네스는 뒤르켐 의미에서 볼 때 가족, 종교, 친구 그 어떤 공동체에도 통합되지 못하는 이기주의자로 분류된다.

요하네스가 매어져 있던 ‘보트 Kahn’의 끈을 풀었다는 것에서도 시사되고 있듯<sup>44)</sup>, 그의 죽음은 공동체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행위

43) 헤켈 Ernst Haeckel은 독일에서 다윈의 연구 성과를 유포하고, 대중화시켰다. 그는 1863년 독일자연과학자와 의사들의 38회 회의에서 다윈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성과들을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Wolfgang Bunzel, a.a.O., p. 24 참조할 것. 그리고 하우프트만은 1882/83년 예나 대학에서 헤켈 강의를 들었다. Roy C. Cowen, *Hauptmann Kommentar zum dramatischen Werk*, München, 1980, p. 51.

44) 독일어 Kahn은 보트라는 뜻 이외에도 ‘감옥 Gefängnis’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요하네스는 자신이 쓴 원고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 먼저 친구 브라운에게 던지시 요청하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한다. 그는 자료 제시만도 12페이지나 된다고 하며 자신의 원고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브라운은 그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며, 오히려 편견만 줄 따름이다. 케테는 그것을 읽고, 이해할 만한 교육 수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 브라운이 그의 태도를 두고 “지속적으로 울부짖고, 징징댄다”(20)고 비난하자, 요하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요하네스 (...) 지속적으로 울부짖고, 징징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조금 한숨을 쉬었다면. 그것은 답답하다는 것이지,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네.(...)(20)

아무도 자신의 작업을 이해하지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답답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요하네스에게 여대생 아나가 나타난다. 그녀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삶의 활기를 되찾게 한다. 그녀와 함께 그는 ‘감옥’과도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숨’을 쉬고, 자신의 ‘이상과 욕망’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갖는다. 아나는 그의 작업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이해하고, 용납할 만한 시대도, 환경도 아니었다. 케테의 불안은 가중되고, 급기야 부모가 총동원되어 그를 압박하기에 이른다. 그의 부모의 눈에 그는 큰 죄를 진 죄인에 다름 아니다. 달리 말해 전통적인 사회 규범이 그를 움 째잡지 못하게 조여오기 시작한다.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아나와의 관계에서 찾던 요하네스는 그 어떤 사회에도 통합되지 못하고, 결국 사회적 규정에 굴복하고 만다고 볼 수 있다.

## 2. 내면화된 억압

요하네스의 자살 원인은 그의 내면적인 심리적 차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계승한 질보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자신의 정신적 친구였고, 동지였던 아나를 떠나보내야 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그녀를 대신할 만한 어떤 대상도 없다. 즉 그에게는 그의 심리적 에너지를 투사할 만한 대상이 없다. 따라서 아나가 떠났을 때, 그녀에 대한 이울배반적인 미움과 사랑의 감정이 공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그의 만류에도 떠나버렸던 것이다. 그로 인한 격분함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하네스의 극단적 행위에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막대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메니거는 공격충동이 ‘초자아’<sup>45)</sup>에서 나오는 것이며, 공격충동은 자책, 죄책감 혹은 마조히즘적 경향을 띠는 관점을 취한다. 초자아가 교육, 특히 부모의 내면화된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 요하네스의 극단적인 행동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간통한 자”, “의무를 망각한 인간”, “네 번째 계명”(67)을 파괴한 자이다. 요하네스 어머니에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아갈 수 없다. 언젠가 비트적거리고 추락하기 마련이다.”(67) 그의 어머니는 신을 부정한 집안은 온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Vgl. 64) 아버지 역시 맹목적인 기독교의 신봉자라는 점에서 그녀와 다르지 않다. 아버지 보케라트는 오히려 더 엄격한 편에 속한다. 보케라트 부인은 요하네스를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남편을 불러들인다. 보케라트는 손자의 영세식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 있었다. 아버지가 나타나자 요하네스는 급격하게 무력해진다.

헨리와 쇼트는 가족에서 아버지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 자식

45) Vgl. Sigmund Freud, *Gesammelte Werke*. Bd. 15: Neue Folge der Vorlesungen zur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se. *Vorlesung 16*: Die Zerlegung der Psychischen Persönlichkeit. Imago, London, 1944, p. 71.

들의 심리적인 내면화가 더 강해진다고 했다. 부모는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공격성이 외부로 향하지 않고, 내부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내면화된 억압의 정도’에 대해 언급했다. 요하네스와 아버지의 아래의 대화를 보자.

요하네스. 아버지, 저에게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대체 뭘 때문이죠?

보케라트. 복종하라는 것이다. 내 말은. 그것이 중요하다.

요하네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저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도 말씀인가요?

보케라트. (...) 우리는 너를 장성시켰다. 걱정도 없지 않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네가 아플 때 너를 돌봤고,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했다.

요하네스. 네, 아버지! 그것에 대해 두 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케라트. 그렇게 말들 하지. 말은 잘 해. 행동, 행동, 나는 그것을 보고 싶다. 신앙심 깊고, 순수하고, 복종하는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감사란다. (89-90)

이 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 요하네스는 부모의 뜻에 ‘복종’해야 하며, 그것도 행동으로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부모에 의해 신앙심 깊은 아이로 길들여져 왔고, 성장해 왔다. 현재 그가 기독교적 가치를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가 그의 내면에 깊게 자리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또 다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존재만도 아니다. 아들이 그의 사랑을 거역할 경우 그는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는 다음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보케라트. 네가 아이였을 때 항상 기도했던 것, 밤이고, 아침이고 알고 있느냐?

요하네스.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버지?

보케라트. >>아 경애하는 신이여, 저는 당신께 요청합니다. 신앙심  
깊은 아이가 되게 하소서. 만약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요하네스. >>... 차라리 저를 지상에서 데려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죽게 두었던 것이 차라리 더 나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케라트. 만약 네가 계속 낭떠러지 길에 있겠다면, 그렇다면, 어떻  
게 할까! 너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요하네스. 그것이 더 나았을 뻔 했겠네요. (90)

아버지는 아이, 요하네스가 ‘신앙심’이 없는 경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맹신적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훈육이 그의 초자아 형성에 깊이 관여했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로 인해 그는 아나와의 관계에서도 죄책감에 시달렸을 터이다. 저항하던 요하네스는 아버지가 엄포를 놓자 결국 굴복하고 만다. 그는 부모의 품에 안기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태도 자체에서도 그의 ‘내면화된 억압의 정도’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요하네스가 케테에게 가하는 폭언과 억압적인 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때로 그는 케테에게 폭군과 같은 행동을 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는다.(Vgl. 51) 이는 그의 ‘내면화된 억압’이 외부로 향하는 경우라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등장으로 케테는 부모의 보호 대상이 되고, 그의 공격 대상은 그 자신에게 향했다고 볼 수 있다.

### 3. “정신적 고통”

프로이트에 기대어 모든 인간은 공격 충동을 갖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 질보그, 메니저와는 달리 샤키데만은 자살 행위가 부담이 크거나 위협적인 현실로부터의 도피라고 보았다. 지나친 부담감과 스트레스 상황이 극단적 선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는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

다.<sup>46)</sup>그렇다면 요하네스는 어떤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는가?

케테와 요하네스의 갈등은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폭발한다. 케테는 은행가로부터 긴급한 편지를 받고, 그와 상의하기를 원한다. 그 동안 그들은 은행에서 받은 이자로 생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자로 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 편지 내용은 그들이 가진 주식을 팔 것이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곧 바로 답을 해 줘야 함에도 요하네스는 그 문제를 논하는 것조차 회피한다. 뿐만 아니라 격분한 채 케테를 비난하고, 그녀의 온갖 자존감을 짓밟는다. 케테가 그에게 “실제적인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일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라고 하며, 오히려 자신을 지지해 주길 바랄 뿐이다. 그녀에게 “하찮고”, “속물적”이라는 비난마저 퍼붓는다.<sup>(49)</sup> 두 사람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보자.

케테 부인. 나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린 필립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돈 벌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어요.

요하네스. 그래, 당신은 언제나 당신 가족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나는 보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यो. 나는 결코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오. 나에게 주요한 일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러오. 단발마의 고통 속에 있단 말이오. 그 고통으로 아주 죽을 지경이러오.<sup>(50)</sup>

여기에서 요하네스는 가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내던지는 언사를 스스럼없이 내뱉고 있다. 그의 부모는 기사영지의 임차인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그가 목사가 되도록 뒷받침을 하였다. 현재는 종종 식료품을 보텔 만한 여유가 있을 따름이다. 아버지가 된 요하네스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짐을 떠안고 있다. 그가 아이의 영세식 날 유독 불안한 태도를 보

---

46) Vgl. Armin Schmidtke, a.a.O., p. 28.

있던 것은 기실 그러한 부담감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실제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념조차도 부족하다. 집안에 닥친 경제적 문제는 그가 지나치게 낭비한 탓이기도 하다. 아나에게도 그는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것을 눈치 챈 브라운이 케테에게 그 사실에 대해 묻자, 그녀가 즉답을 피하고 계산서만 들여다보는 데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이다. (Vgl. 56) 케테가 갈수록 우울감에 빠져들고, 힘들어 하는 이유는 아나에 대한 질투심에 앞서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아직 회복기 환자인 케테가 일거리를 찾아 나선다는 데서도 그들 집안에 드리워진 경제적 심각성을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요하네스 역시 그러한 경제적 문제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경제적 문제는 아나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일 모두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의 정신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극심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요하네스의 문제는 당시 독일의 관념적 지식인이 처한 고뇌와도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요하네스는 고등 교육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그의 부모 세대처럼 더 이상 기독교의 가치를 신봉하지 않는다. 그는 다윈, 헤켈로 대변되는 새로운 자연과학적 세계관을 수용한 지식인이다. 하지만 그의 친구 브라운에 의해 폭로되고 있듯 그는 사회 개혁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사회주의자도 못된다. 다시 말해 요하네스는 기독교 중심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도, 그렇다고 진보적인 사회주의자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브라운에 의해 얼핏 드러나듯 당시의 주류적 흐름과는 다른 인간의 정신 심리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에겐 개인의 욕망과 자유 의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니체주의에 가깝다고 여겨진다.<sup>47)</sup>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은행에 넣어둔 것마저 탕진해가고 있는 중이다. 낭비벽에다가

47) Vgl. Peter Sprengel, *Gerhart Hauptmann Bürgerlichkeit und großer Traum*, Nördlingen 2012, p. 179.

경제관념 역시 부족하다. 박사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차라리 “단순한 농부” 혹은 “정원사”라도 되길 원하는 것은 그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현실은 자본주의 산업 체제로 빠르게 진척해 가고 있는데 요하네스는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뒤떨어진 것이다. 자신의 내면적 욕구와 현실적 상황의 불일치가 그를 괴롭히는 “정신적 고통”이 아닐 수 없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하네스의 자살은 사이드만의 의미대로 부담이 되는 위협적인 현실로부터의 도피로 보기에 충분해 보인다. 달리 말해 그의 행동은 변화에 대한 희망도, 부모와 같은 소시민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지 못한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48)</sup>

#### IV. 나오는 말

앞에서 살펴 본 바, 『외로운 사람들』에서 주인공 요하네스의 자살은 사회적, 개인 심리적, 경제적 문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조명 가능한 사례이다. 뒤르켐의 시각에서 볼 때 요하네스의 자살은 당대의 주도적인 사회질서에 통합되지 못한 개인주의자로서 ‘이기적 자살’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정신분석학적 시각에서 요하네스는 무의식적 억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다. 요하네스는 신앙심이 두터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그것이 그의 ‘초자아’를 형성시켰음에 분명하다. 특히 아버지가 주도적인 가정에서 그의 ‘내면화된 억압의 정도’를 가늠하기에 충분했다. 사랑하는 대상이 그를 떠났을 때 그는 공격 대상을 그 자신에게 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관, 부모와의 갈등 이외에도 요하네스는 보다 현실적인

---

48) *Ibid.*, p. 175.

문제, 즉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경제관념도 부족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화 과정에도 적응하지 못한 인물이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도 볼 수 있다. 개인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분출되던 시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독일 관념론 지식인이 처한 시대적, 개인적 문제를 ‘자살’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평가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 요하네스의 자살 동기는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을 요구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현대성이 확인된다.

## ■ 참고문헌

- 김경란, 「독일문학에 나타난 자살양상」, 『독어교육』, No. 61, 2014.
- \_\_\_\_\_, 「독일문학에 나타난 자살모티브 -에밀 슈트라우스 『친구하인』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제63집, 2014.
- 노영돈, 「하우프트만의 외로운 사람들에서의 여성상과 문제점」, 『뷔히너와 현대문학』, No. 29, 2007.
- 뒤르켐 Durkheim, Émile: 『자살론』, 황보종우 옮김, 청아출판사, 2008.
-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11.
- Christa Baum, *Selbstmord: Soziologie, Sozialpsychologie, Psychologie*, München, 1971.
- Bronisch, Thomas und Brunner, Jürgen, “Neurobiologie suizidalen Verhaltens am Ende des 20. Jahrhunderts.” In: *Suizidforschung und Suizidprävention am Ende des 20. Jahrhunderts*. Hrsg. Manfred Wolfers, Regensburg, 2000.
- Bronisch, Thomas, “Depression”, In: *Der Suizid. Ursachen, Warnsignale, therapeutische Ansätze*. Hrsg. Thomas Bronisch, Stuttgart, 2002.
- Bunzel, Wolfgang, *Einführung in die Literatur des Naturalismus*, Darmstadt, 2011.
- Freud, Sigmund, *Gesammelte Werke. Bd. 15: Neue Folge der Vorlesungen zur Einführung in die Psychoanalyse. Vorlesung 16: Die Zerlegung der Psychischen Persönlichkeit*. Imago, London, 1944.
- Hauptmann, Gerhart, *Werkauswahl Bd. II*, Augsburg 1994.
- Meier, Christel E. *Das Motiv des Selbstmords im Werk Gerhart Hauptmanns*, Baden-Baden, 2005.
- Mennig, Karl :*Man against himself*, Frankfurt am Main, 1978.
- Prexl, Lydia, *Zwischen Selbstbehauptung und Eskapismus. Der narzisstische*

- Suizid im amerikanischen Gegenwartsdrama*. Norderstedt, 2014.
- Roy, Alec, "Possible Biologic Determinants of Suicide." In: *Current Concepts of Suicide*, Hrsg. David Lester. Philadelphia, 1990.
- Schmidtke, Armin, *Verhaltenstheoretisches Erklärungsmodell suizidalen Verhaltens*, Regensburg, 1988.
- Shneidman, Edwin S., *Definition of suicide*, New York, 1985.
- Shneidman, Edwin S., "Suicide as Psychache." In: *Essential Papers on Suicide*. Hrsg. John T. Maltzberger und Mark J. Goldblatt. New York, 1996.
- Sprengel, Peter, *Gerhart Hauptmann Bürgerlichkeit und großer Traum*, Nördlingen, 2012.
- Willemsen, Roger, *Der Selbstmord. Briefe, Manifeste, literarische Texte*. Köln, 2002.
- Gerit, Langenberg-Pelzer, *Das Motiv des Selbstmords in der deutschen Literatur der Jahrhundertwende*. Diss. Aachen, 1995.

❖ ABSTRACT

Suicidal Motives of <<*Lonesome People*>> by  
Hauptmann

Kim, Hwa 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western literature, suicid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otives. Also, we can see frequent use of suicidal motives in the German's naturalism works. Suicidal motive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Lonesome people*>> by Hauptmann, a representative playwright of German naturalism. This paper focuses on describing multiple perspectives of suicidal motives of Johannes, the main character. First, the suicide by Johannes can be interpreted as Durkheim's "egoistic" suicide. Second, his death can be categorized by Freud's psychoanalysis. Third, the realistic problem, which is economical stress, influenced his suicide.

Key Words : suicide, lonesome people, Hauptmann, naturalism, Durkheim, superego

■ 논문접수일 : 2020. 11. 10

■ 심사완료일 : 2020. 12. 13

■ 게재확정일 : 2020. 12. 14